

## 제206회 중앙총회임시회 인사말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씁없는 정진으로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고 계시는 총회의장스님과 의원스님들께 감사와 더불어 안부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더위는 우리들을 지치게도 하지만 그 열기야말로 만물이 풍요로워지는 근본이기도 합니다. 흘러내리는 한 줄기 땀방울에도 감사해지는 이유입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행 정진하는 마음과 그 수행력으로 전법과 교화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 주시길 기원합니다.

올 상반기 종단은 제33대 집행부와 제34대 집행부에 걸쳐서 이룩해 온 각종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미래의 종단이 열어나갈 희망찬 불교중흥의 초석을 놓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불교가 ‘희망의 길벗’이 되겠다는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 사회노동 실천위원 발족을 비롯한 각종 종단의 사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부대중 대중공사를 지역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종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려복지를 더욱 공고히 하여 그 대상과 지원 규모를 늘려가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전통사찰의 존엄을 더욱 살려 나가기 위해 ‘한전부지 환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종교용지를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제7대 포교원의 출범은 향후 종단의 전법활동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내년 우리나라는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2년 후인 2018년에는 핵심 경제인구가 줄어드는 소위 ‘인구절벽’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인공지능을 갖춘 정교한 로봇들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종단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성찰과 개진을 통해 종단의 근본을 더욱 튼튼히 하며 미래를 향해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종단의 소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임자이기에 시대와 종도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 완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제206회 중앙총회 임시회는 총무원장 선출 제도와 관련한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총회의원은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종단의 최고 규범이자 질서인 종헌은 여러분 한분 한분을 입법기구이자 대의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총무원장 선출제도와 관련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의 과정과 결과를 주의 깊게 보셨을 것입니다. 대중공사는 ‘참종권의 획기적인 확대’를 주문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제도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의원스님들이 깊은 고심으로 논의하신 것에 더하여 그 참 뜻을 잘 살피주시길 바랍니다.

총무원장 선출제도는 민주적 종단 운영의 시금석이지만 종단 운영 문제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각종 종단 소임자들의 선출에 대한 종도들의 참여, 종단의 재정문제, 교구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역할 등의 문제들 까지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2020년, 2030년을 대비하여 종단의 전망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도들과 사회의 눈이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 여망을 잘 살피서 이번 총회를 활발활한 지혜탁마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을 나아 가을의 풍요를 기대할 수 있듯이 종도들의 뜻을 담아 여러분이 펼쳐나가는 의정활동에 종단의 미래가 열립니다. 소중한 한분 한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집행부 역시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0(2016)년 6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